

KC NEWSLETTER

VOL. 52



창립 40주년 기념행사 개최



KC코트렐은 11월 27일 창립 40주년을 맞아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태국 푸켓 힐튼 아카디아 리조트에서 이태영 대표이사, 서동영 총괄 부사장 및 임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실시하였다.

1973년 한국코트렐공업주식회사로 시작하여 2008년 사명 변경 후, 오늘까지 KC코트렐이라는 이름으로 전세계 환경산업의 선두 주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온 임직원들이 모두 모여 서로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여행의 첫째 날은 전 사원이 KC코트렐 전용 페리를 타고 피피섬



관광을 하며, 그 동안 업무로 소홀해졌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 공장, 본사 가릴 것 없이 모두가 한데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을 배경 삼아 즐긴 선상파티는 피피섬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되었다.

눈부신 바다와 섬이 어우러진 피피섬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스노쿨링을 즐기는 임직원들의 얼굴에 담긴 미소는 피피섬의 에메랄드 바다보다 더 아름다웠다.

피피섬 관광을 마치고 리조트로 돌아와 시작된 40주년 기념행사는 이달우 회장의 축사와 함께 지난 40년간의 추억이 담긴 영상을 보며 지나온 시간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느끼고, 곁에 있는 동료들의 고마움을 느끼며 시작하였다.

40주년을 기념하여 회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있는 많은 우수사원들(14명)을 표창하였으며, 오랜 기간 동안 KC코트렐과 희로애락을 함께 한 동반자들에게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10년(1명), 15년(12명), 20년(8명) 그리고 25년간(3명) KC코트렐과 함께 하였으나 아쉽게도 함께 자리하지 못한 해외EPC사업부 김용범 선임, 발전사업부 서정세 상무를 대신하여 같이 25년을 걸어온 운영혁신팀 김광섭 과장이 대표로 축하를 받았다.

기념식은 서동영 총괄 부사장의 감사인사로 마무리되었다. 서동영 총괄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그 동안 KC코트렐이 환경전문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준 KC코트렐의 모든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세계환경산업의 선두주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부탁하였다.

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2부 행사에서는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이 이어졌다. 아침부터 이어진 일정에 지칠 만도 했지만, 모든 직원들의 얼굴엔 미소가 떠나지 않았다. 부서와 직급을 떠나 모두가 한데 어울려 레크레이션 강사의 도움을 받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공식적인 창립기념식 행사가 마무리하면서 이태영 대표이사는 지난 날 40주년에 전사직원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KC코트렐 전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지금처럼 앞으로도 각자의 자리에서 회사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부탁하며 이 날의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여행의 둘째 날은 각자 산호섬 투어, 타차이 투어, 팡야만 투어 등 소규모 그룹별로 자유 시간을 가졌다. 여행을 즐기는 법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인지 전사직원이 모였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



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푸켓의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숙소로 돌아와 다 함께 잠시 그리웠던 한식을 먹으며 각자가 보낸 소중한 시간들을 나누며 하루를 정리하였다. 여행 마지막 날은 여유로운 일정으로 다 같이 왓찰롱 사원을 구경하였다. 뜨겁게 내리쬐는 태양과 후텁지근한 동남아의 날씨를 느끼며 마지막의 아쉬움을 행복한 추억으로 만들었다.

40주년 기념행사기간 동안 직원들의 동기부여뿐 아니라 서로 몰랐던 직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 활동을 같이 하게 되는 등 직원들의 소통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40년간 임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KC코트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며, 앞으로 더욱 단단하게 결속하여 다가올 도전을 함께 해쳐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



KC 글라스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동반성장 간담회 개최

KC글라스는 주요 협력업체와 연 1회 이상 동반성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08일 유난히 청명한 가을하늘이 펼쳐진 경기도 이천 자유 C.C에서 가진 금번 간담회에는 파유리, 석회석, 소다회, 규사, 금형 등을 공급하고 있는 6개 협력업체가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그동안 끈끈한 협력관계를 이어오면서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최근의 원자재 수급 및 가격동향을 분석하면서 파트너십 강화 및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들을 교환하였습니다. 모처럼 바쁜 일상을 떠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상호간 폭넓게 소통하며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KC글라스는 지속적인 간담회 개최를 통해 공동성장 방안과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협력업체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실질적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글 홍세라

KC 글라스

KC글라스의 일하기 좋은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2013년 민 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형형색색 물들은 단풍의 정취를 다 느끼기도 전에 찾아온 때 이른 추위에 KC글라스는 올해 예년보다 일찍 동절기 근무복을 착용하고 난방기를 설치하는 등 겨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맘때 쯤이면 차갑고 매서운 바람보다 더욱 무서운 각종 화재소식들이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 소식을 접할 때면 화재에 대한 무서움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KC글라스는 사고와 화재로 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되기 위해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실전 같은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훈련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0일 천안 서북구 소방서 소방대원 8명과 자위소방대원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 관 합동 소방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은 가스누출로 인해 발생한 화재가 빠르게 연소, 확대되고 있는 긴급한 상황을 가정하여, 신속한 초동 진화부터 상황전파, 옥내소화전을 이용한 화재진압, 사후복구까지 전 과정을 모의훈련 하였습니다. 특히 자위소방대의 화재 피난통보 및 소방대원 도착 전 소방시설을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훈련에 초점을 맞췄으며, 환자발생시 응급처치 및 신속한 이송 등의 안전보건 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고온의 열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의 특성상 화재발생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고 있지만,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안전사고와 화재발생이 전무한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글 홍세라



KC 에어필터텍

KC에어필터텍 첫 워크샵 개최

11월8일 KC에어필터텍이란 이름을 달고 출발한 첫 워크샵.
새 사무실로 이사 오고 새로운 사람(홀딩스의 백동호선임, 김현주대리)과 새 마음으로 우리의 워크샵은 그렇게 시작됐다.
오전 프리젠테이션의 첫 번째 시간은 2013년 회사의 경영실적과 2014년의 경영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목표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KC에어필터텍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가?에서 참석자 모두 다양한 의견교환을 가지면서 생산품목을 정의하고 주요기능과 장단점에 대해서 의견을 발표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식사 후 곱게 물든 늦가을의 유명산 단풍 산행이 시작되었고 출발이 늦어 비록 정상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었다. 이어진 바베큐 저녁만찬은 서로의 생각과 각오를 나눌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서 회사의 미래와 그 속에서 나의 미래도 점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가 한팀(TEAM)이라는 것을 새삼 확인 할 수 있었다. “Together Everybody Achieve More”
모두가 함께 할 때 그 이상도 성취 할 수 있는 우리는 한팀(T.E.A.M)입니다. 미래의 그날 까지 다같이 고고고!!

글 생산팀 서찬석.



KC 솔라에너지



한국영재학교 20kW 태양광 발전설비 기부

지난 2013년 11월 30일 부산시 부산진구에 위치한 KAIST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부산과 학교등학교로 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영재학교로 미래를 양성할 글로벌 과학인재를 양성)에 약20kW급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해당 설비는 KC솔라에너지(주), 한국남부발전(주), 한화큐셀코리아(주) 3사가 함께 기부에 참여하여 설치한 것으로, KC솔라에너지(주)에서 주요 기자재 및 설치공사, 한국남부발전(주)에서 현금 (2천5백만원) 기부, 한화큐셀코리아에서 모듈 기부를 통해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설비는 전력상계거래를 통해 태양광으로 발전한 전력의 도움으로 한국영재학교는 연간 250만원 상당의 전기 요금 절감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추후 학생들의 연구용 설비로도 사용되어지는 등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글 박경선

www.kc-cottrell.com

맑은 하늘을 생산하는 공장??

KC코트렐이 지구를 생각하는
고객사와 함께 합니다.

Global Clean Air Company

KC Cottrell



KC뉴스센터